

## “베트남 집 만들고 네팔 음식도 먹었어요”

새날학교 학생들, 광주 초등생 초청 다문화 체험축제

새날학교 아이들이 특별한 기들을 맞이했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새날학교 학생들이 17일 개교 5년 만에 ‘새날 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체험축제’라는 주제로 축제를 시작했다. 오는 22 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과 이주여성들이 직접 준비, 광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날에는 계수초등학교와 불로초등학교 학생 28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학생들과 이주여성들이 마련한 행사를 즐기고 경험했다.

새날학교 학생들은 이번 축제를 위해 며칠 전부터 몽골, 태국, 러시아, 캄보디아 등 어머니 모국의 전통 민속공연을 배워 축제장을 찾은 한국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또 직접 대나무를 자르고 끓어 베트남 전통 가을을 만들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등 어머니 국가의 체험부스를 꾸미기도 했다.

또 사물놀이와 오카리나, 힙합 댄스 공연을 준비해 한국의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날학생들의 어머니인 이주여성들도 직접 모국의 부스를 운영하면

서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다. 또, 전통 의상을 입고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왔다.

행사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즐기워했던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새날학교 학생과 이주여성들이 마련한 오코노미야끼, 기노코 고engl, 베트남 쌀국수, 짜이, 카트레트 등 외국의 전통음식을 난생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느라 힘들 했지만 새날학교 학생들과 이주여성들에게는 처음 맞는 축제가 즐겁기만 했다.



17일 새날학교 축제를 찾은 불로초, 계수초 학생들이 중국 체험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학교를 찾은 한국 학생들도 난생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전통공연과 의상, 언어들이 즐겁기만 했다.

18일에는 극락초등학교 학생들이 축제장을 찾는다. 22일에는 새날학교 후원자와 학생들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Home Coming Day’ 행사도 진행된다.

김미라(여·43) 새날학교 일본 모

국어 교사는 “14개국의 학생들이 직접 한국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상실해가고 있는 존재감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며 “단발성 축제로 끝내지 않고 세계 각국의 문화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혁종 광주대 총장 中대학 방문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중국 대련공업 대학과 양교 간 학생 및 교수 교류 강화, 학문연구 성과 공유 등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출국해 대련공업대학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했다.

송영무 순천대 총장 내달 취임



송영무(57·수학 교육) 순천대 교수가 다음달 11일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송 교수는 남원출신으로 1985년 사범대 수학교육과 교

수로 임용된 후 교수회 평의원, 방송국 주간, 전자계산소장, 교무처장, 과학영재교육원 초대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영국 세필드대와 미국 캐ン터리 주립대 교환교수를 거쳤으며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정책연구 과제 평가위원, 대한수학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장호 김명환씨 국민훈장



광주지검 장흥지청 범죄예방협의회 위원인 김명환(66·장흥읍 건산리)씨가 청소년 선도의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1년 동안 청소년 선도,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앞장서 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 “30년 행정경험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일 하고파”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퇴…내년 총선 도전

전남도 최고의 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아온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52)가 17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전문가로 30년 6개 월의 공직생활 중 중앙부처와 부단체장 시절을 제외한 20여년을 전남도청에 근무할 정도로 전남도정의 ‘안방마님’ 역할을 해왔다.

답양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2회)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부지사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남도에서 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친후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여수·목포 부시장 등을 지냈으며 2009년 7월부터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2년 3개월만에 이날 명예퇴직을 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놓고 고민했던 시간을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직원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전남도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 제19대 총선 출마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표를 던지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본격적인 빙밭갈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30년 공직생활동안 공무원들은 물론 고령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해 지방자치와 농수산 분야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스승·제자 뭉쳐 국제기능올림픽 우수상

전남공고 이동승 교사·안국성씨 ‘자동차 정비’ 출전

5년 여에 걸친 스승과 제자의 남다른 열정이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16일 이동승 교사(전남공고 특성화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자공고를 졸업한 안국성(20)씨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자동차 정비’ 부분에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출전해 우수상을 받았다.

안씨는 지난 2009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 정비 부문 금메달을 따내 국가대표가 됐다.

이 교사는 국가대표 기능으로 성장한 데는 이동승 교사(전남공고 특성화부장)의 혼신적인 열

정이 있었다. 이 교사는 광주전자공고 재직시 안씨를 기능인으로 키웠고 삶의 멘토 역할을 했다.

이 교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안군과 숙식을 함께하며 신기술을 가르치고 해외 현장답사에 배운 첨단 정비기술을 전수했다.

## ‘자랑스러운 조대부고인상·은사상’ 선정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정병용)은 지난 16일 ‘제22년차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에서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수상자로 고정주(18회) 나영산업 회장, 송삼홍(20회) 주기원전기 대표이사, 안병태(26회) 제35보병사단장을 선정·시상했다. 또 주규호 선대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에게 자랑스러운 은사상을 시상했다.

고정주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모교에 수차례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모교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송삼홍 대표이사는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아낌없는 나눔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한 점이 등문은 물론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안병태 사단장은 26회 동창회 발기인으로 동창회가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주규호 교수는 조대부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의 제자들을 남모르게 도와주고 격려해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내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 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 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배운과 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힐링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선 학장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답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당뇨거주자이면서 조건 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동,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부 음

▲채순식씨 별세 이종영·영용·금례·금희씨 모친상=발인 19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부 음

▲김경래(남·여/93세) 故김경래(남·여/93세)

子/子婦: 김영일·유정자·윤수·박현순 女/婿: 윤덕립·신원행·손임

•발인: 10월 19일 08: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11

▲김삼근(남·여/78세) 故김삼근(남·여/78세)

子/子婦: 김현희·이준희·이현경·김현경

女/婿: 이민우·정상남·곽무진·이현경·김현경

•발인: 10월 19일 08: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11

▲김강우(남·여/64세) 故김강우(남·여/64세)

子/子婦: 김경숙·김경희·김경희·김경희

女/婿: 김현우·김현우·김현우·김현우

•발인: 10월 19일 08: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11

▲김미애(남·여/50세) 故김미애(남·여/50세)

夫: 성해경 妻: 김현근·정근수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5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

▲김현근(남·여/49세) 故김현근(남·여/49세)

夫: 최현석 妻: 김현근

•발인: 10월 19일 00:00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50-4401